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반려에 "검찰 신경 안 써...잘 협의 중"

등록 2026.05.11 12:00:00 | 수정 2026.05.11 12:34:46



[서울=뉴스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k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시스]이다솜 최은수 기자 =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재검토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받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반려된 것이 검경 신경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접수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에도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일 영장을 반려했다.

방 의장에 신병 확보 시도가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나 불발되면서 경찰은 방 의장을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가지 각종 비위 의혹으로 9개월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수사가 마무리돼야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아직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확히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인사로 김 의원 수사 실무진이 대거 교체된 것에 대한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 인사는 항상 있어왔던 일"이라며 "상관 없이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schoi@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